



발레로 피어나는 광주의 아픔 연대의 몸짓으로 건네는 위로

광주시립발레단 브랜드 공연 'DIVINE'...24-25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분노·고통·희생·용서·치유...역동적 몸짓으로 전달 시대의 아픔 다양한 해석으로 인류 보편적 감정 공유

지난해 7월 첫 공연 후 무용계와 평단의 큰 호평을 받은 광주시립발레단의 브랜드 공연 'DIVINE'이 올해도 빛을 무대에 올린다.

광주시립발레단 제137회 정기공연 'DIVINE'이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25일 오후 3시와 7시 총 세 차례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5·18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발레라는 장르로 자유분방하면서 역동적으로 표현해낸 작품 'DIVINE'은 분노, 고통, 희생, 용서, 치유의 과정을 원초적 몸짓으로 펼쳐나간다.

시립발레단의 과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추진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신작으로, 연출이나 안무에 있어서도 한국을 넘어 해외 무대에서도 각광받을 만한 동시대적 세련미를 갖추고 있다.

세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진행 중인 비극적 순간들을 인류 보편의 동일한 감정으로 전달하는 컨템포러리 발레다.

이 작품은 구체적인 역사적 트라우마를 소재로 했음에도 스토리나 캐릭터를 드러내지 않은 채 환상적이고도 숭고한 미장센에서 참혹했던 그날의 모습을 목격하게 한다.

50여명의 대규모 출연진들은 탄식과 애도의 몸짓을 펼치기도, 자유를 향한 몸부림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 예정이다.

무용수의 몸과 하나가 된 의상, 강렬하면서도 서정적인 음악과 더불어 심미적으로 배치된 조명과 세트, 소품 등은 작품의 세련된 감각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각각의 동작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움직임이 느껴지는데, 이는 인간을 깊이 사랑하는 안무자의 철학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주제만 안무가는 "극장에 앉아 공연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모두가 고귀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스스로 위안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됐

면한다"고 밝혔다.

총연출을 맡은 박경숙 예술감독은 "지난해 많은 호평을 받은 시립발레단 브랜드 작품 'DIVINE'을 재공연하게 돼 매우 뜻 깊다"며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5·18 영령과 가족, 광주 시민을 위로하는 예술적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으로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또는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한편 작품 'DIVINE'은 지난해 제30회 월간 '몸' 주관 무용예술상 작품상을 수상하며 한국 발레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발레 평론가들은 이 작품에 대해 정치적 파국과 구원, 고통과 연대의 몸짓이 더할 수 없이 상서롭게 표현됐다고 평했다.

/최명진 기자

특별한 취향여행 '덕질쌀롱' 가이드 모집

동구문화관광재단, 20일까지

'덕질', 특별한 취향·주제·문화에 시간과 정성을 즐겁게 쓰는 활동을 말한다.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은 '덕질'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취향여행 플랫폼 '덕질쌀롱'을 본격 운영한다.

재단은 이를 위해 '덕질가이드(코디네이터)'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덕질가이드는 특정 분야의 덕후로서 특별한 취향, 주제, 문화로 덕질 모임을 기획해 주도적으로 운영한다는 조건에 충족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덕질쌀롱'은 광주에서도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자유롭게 퇴근(하교) 후 떠나는 특별한 취미여행을 컨셉으로 기획했다. 넷플릭스 보고, 카페 가는 것 등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고 싶

같은 덕후끼리 재밌게 놀고 이야기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고, 자신만의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들의 활동으로 지역민

뿐 아니라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덕질가이드는 덕질 주제 및 활동 내용을 기획하고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최대 2회 모임을 운영하게 된다. 올해 약 14개의 '덕질쌀롱'이 운영될 예정이며 사립 덕질, 먹는 덕질, 모이는 덕질, 문화 예술 덕질, 스포츠 덕질 등 다양한 주제의 덕질쌀롱을 꾸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또는 청년문화허브 블로그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전라·제주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출범

광역차원 정책 발굴 등 협력

광주·전남·북·제주 여성가족정책 전문기관이 모인 지역 최초 광역형 성평등 기구 '전라·제주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가 지난 3일 출범식 및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라·제주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출범은 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광역차원의 성평등 정책 의제 발굴 및 공론화를 위해 이뤄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최지현 광주시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4개 기관의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이어지는 기초발제에서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방소멸 위기와 성평등'을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기법 포럼에서는 '전라·제주지역 지방소멸 위기와 여성가족정책 진단'이라는 주제로 광주·전남·북·제주 4개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현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좌장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표는 김영신 광주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정인경 전남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장, 강권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맡았다.

참가자들은 저출생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성평등 관점에서 해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성평등 거버넌스의 확립과 성평등 의제를 통한 해법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도자로 경험하는 문화 다양성

ACC '길 위에 도자' 전시 연계 테마강좌 '눈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인기 전시 '길 위에 도자'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연계 테마 강좌가 마련됐다.

'길 위에 도자'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예술가들이 자신의 조형언어로 표현한 색다른 형태의 도자를 조명하는 전시다. 동시대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포착된 '이주'의 현상을 현대미술로까지 확장하려는 시도 중 하나다.

이번 강좌는 ▲전시 기획자와의 만남 ▲전시 읽기 ▲창작 워크숍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14일부터 7월9일까지

ACC 문화정보원B4 문화교육실5와 조선대 미술대에서 총 6차례 열린다.

먼저 오는 14일에는 전시를 기획한 조은영 ACC 학예연구사와 '도예로 만나는 문화적 다양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조 학예연구사는 전시 기획과정과 전시에 미처 담지 못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

같은 날 문화평론가 구재진 세명대 교수는 '떠나야 하는 자와 떠나고 싶은 자의 삶'을 주제로 영화 '패스트 라이프', 소설 '카스테라', 예능 '스페인



하숙' 등 오늘날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민자의 삶'을 조명한다.

이어 16일에는 정재곤 다문화심리학자가 '다문화는 체험이다'를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이날 정 학자는 다양한 문화와의 공존이 오늘날 불가피한 현상임을 언급하며 불편하더라도 '다른 것', '다르다고 여겨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형성하고 또 풍요롭게 가꿔나가기 위한 이민자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오는 7월2-3일, 10일에는 조선대 미술대에서 백민지 도예가의 '도예공방: 흙에서 도자가 되기까지' 창작 워크숍이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길 위에 도자' 참여 작가 중 한 명인 베트남·멕시코계 미국인 린다 응우옌 로페즈의 색소지를 활용한 창작방식을 체험해본다. 이와 함께 핸드페인팅, 성형, 유약 시유와 소성 등 도자기 제작 과정도 경험할 수 있다. 강좌는 3회 연속 진행되며, 초보자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